

주 제 발 표 3

재미와 상상력으로 만드는 송악마을만들기

안 복 규 | 다라미자운영마을 대표

재미와 상상력으로 만드는 송악마을만들기



영양군 / 다라미자문마을을 대표, 시가지정원농조산 '송악농네서활'을 주관함

마을과 학교의 소통과 나눔 ♡ 농업과 마을순환경제의 자족발전 ♡ 문화예술로 삶을 나누다
다들여함께하는 자마난 마을살이를 꿈꾸는 송악마을공동체



[illegible]

- **종약감리교회내 친환경연구모임으로 부터 시작(2001)**
- **우리농법, 우렁이농법으로 유기농쌀생산지와 친환경채소생산지가 확대되고 한실림아산지부가 출범, 아산 읍농과 함께 전국 최대의 한실림 생산지로 발돋움함**
- **지역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역의 학교에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**
- **생협, 한살림소비자, 지역주민, 학교아이들의 생태체험, 자연영축제, 정월대보름축제 등 농촌축제와 함께 농촌체험마을의 대표적 지역으로 자리매김**

- 2001년 세대가, 이어서 자연친화적 시민, 화가 현재 100여가구가 있는 송남초등학교는 자연친화적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.



- '마을에서 나뉘는 것으로 마을이아름답다'는 의제로 만든 이농마을, 수년남이, 농산물생산자회가 송남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.



- 생활과 학습을 지역화하고 교육목표에서 벗어나 농사 체험, 생태체험하는 생활문화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.



마을과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꿈꾸다 거산초와 송남초, 송남중

- 2000년 송남초는 본교를 유지하나 전교생 80명 수준.
거산초는 그 당시 분교상태로 전교생 40명 수준으로 폐교의 위기를 갖게 됨
- 1999년~2000년 교육부의 전국적 작은학교 통폐합시도에 아산YMCA, 작은학교를 지키는사람들 중심으로 송남 20여개 학교를 살리는 과정에 거산학부모들과 함께 거산초를 살리고 공교육안의 대안학교 형태로 전원형작은학교로 거산초를 만들어가게 됨
- 2001년, 거산초와 송남초를 농촌마을의 작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로 만들어가자는 마을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송악교육지치주민연대를 출범
- 2011-13년 학교와 반딧불이가 함께하는 마을교육네트워크로 온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펼침(마을교육신문, 마을신문아카데미, 마을학교)

• 거산초가 공립형대안학교로 전원형작은학교로 지역에 잘 자리잡고 송남초 또한 뜻있는 교사들이 들어와 학부모와의 연계학습, 아빠랑 쌤 쌤, 마을교육, 예술교육 등으로 지역학교로서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됨.

• 농촌마을 작은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송악마을에 많이 들어옴으로 귀촌, 귀농인구가 현격하게 늘어남

: 2008년 송남초 전교생 87명 -> 2016년 현재 전교생 250명
: 송악면인구 2008년 3,100명수준 -> 2016년 현재 4,200명 정도임

• 2006년 한겨레신문, 삼성에서 공모한 기적의도서관만들기사업으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모아 송남초에 송향금누리도서관만들게 됨
마을추진회와 마을사서, 학부모, 학교가 함께 도서관을 운영함
마을내 도서관이자 다양한 모임을 해나가는 배움터가 됨.

송남초등학교 / 서산로등학교 / 송남중
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꿈꾸다!!!



민들이 학교다



• 아이들과 주민들의 마음을
교사, 마을장, 학부모, 농부, 학생, 지역주민들이
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마을학교 운영의 모티브이다



• 어른과 아이들



• 마을학교
현황



• 마을학교 교사 • 마을학교 학생 • 마을학교 학부모





지역사회교육의미가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속 배움터를 만든다

- IMF 경제위기 이후 도시지역 가정해체의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대거 농촌지역 조부모의 양육에 맡겨지는 사례가 급증함.
- 2003년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마을속의 배움터로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짐
- ‘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전체가 필요합니다’를 모토로 마을주민들이 교사가 되고 도움이, 후원자가 되어 다양한 문화, 예술, 학습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사랑방이자 배움터공간이 됨
- 매해 가을에 열었던 반디가을축제가 아동연극팀, 청소년연극팀, 청소년영화모임, 청소년밴드 등의 동아리 활동과 함께 성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로 자연스럽게 송악마을예술제로 발전



스스로 더불어성장하는 마을배움터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

-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전체가 필요합니다. 2003년 마을운영위원회 구성, 마을배움터 조성

- 마을주민들이 교사가 되고 도움이, 후원자가 되어 다양한 문화, 예술, 학습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사랑방이자 배움터공간이 됨



- 전선반딧불이문화축제, 안동, 영도저작동아리
- 전선반딧불이영화제, 시선기이행공존이행능





생산과 소비의 행복한 만남 - 협동조합 '고랑이랑'

마을의 건강한 농산물과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농산물공급망(생산·유통·소비) 사업



협동조합 '송악에너지공방'



대안에너지 햇빛에너지(햇빛에너지) [작업이
술고려를 늘리는 것] 제작, 마을목공



사회적협동조합 '송악동네사람들'

- 2013년에 시작된 '송악동네사람들' 협동조합준비모임은 천천히 재미있게 가자는 의견을 모아 '마을언니에게배우자' '자연법상' '송악마을골목예술제' 등 마을내 배움과 축제를 해나가면서 모임을 지속해나가는 과정 중에 2016년 2월 사회적협동조합 '송악동네사람들'을 만들게 됨
- 2016년 송악동네사람들의 모임터이자 마을의 나눔터인 무인가페인 '늘다가게' 개소함.
- 2016년 시골농부, 요리사, 예술가가 함께하는 송악마을장 '송악농장'(년 4회)과 송악마을예술제를 진행,
송악마을의 재미난 마을살이, 삶을 공유하며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마을의 커뮤니티축제가 됨

사회적협동조합 '송악동네사람들'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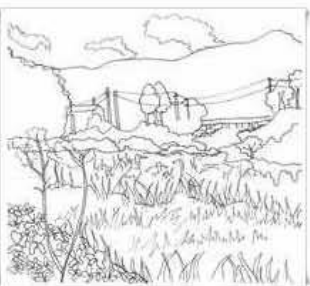
-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힘과 창조성으로 만드는 마을문화공동체를 지향합니다
- '마을에서 놀고 먹기', '배움과 성장', '참여와 자치'로 만드는 마을학습공동체를 지향합니다
- '마을이 학교다'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, 청년들이 마을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삶을 배워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
- 마을안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, 살림살이의 공유, 자조자립의 마을경제를 지향합니다
- 우리 마을에 꼭 있었으면 하는 공통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의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향합니다







소박하고 아름다운 송악을 좋아하는 사람들,
 마을에서 재미난 것들을 만들고 찾으면서 함
 께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,
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으로 풍성한
 고향동네를 이어주고 싶은 사람들,
 재미난 마을살이를 꿈꾸며 함께하는 사람들,



송악동네사람들은
 함께 놀며 배우며 나누며 살아갑니다~

